

2026년 6월 25일

Hana FX Daily Letter

외인 자금 흐름과 환율 변동성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글로벌 달러 강세에도 상단 경계감에 상승폭 제한**

daily range 예상: 1,535~1,545원

-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준 금리 인상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미국 PCE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경계감이 짊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달러 강세를 자극하면서, 금일 달러/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다만, 반도체 관련주 호재에 힘입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다소 주춤해질 경우, 상방 압력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 또한, 환율 상단에서 지속되고 있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역시 추가 상승을 억제할 요인으로 판단됨

- **전일 동향 : 24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7원 상승한 1,541.8원에 마감** 역외환율 하락을 반영해 4.2원 내린 1,534.9원으로 출발. 그러나 뉴욕증시 기술주 급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에 반동하며 1,540원대 초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무리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연준 금리인상 경계감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1,542.7원으로 상승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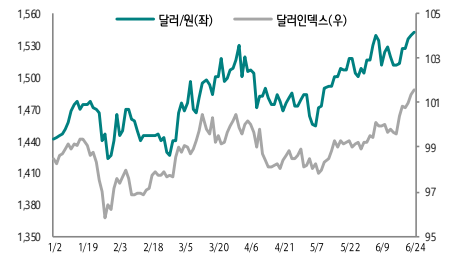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공급 증가 소식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된 탓에 달러 강세 폭은 확대됨
- **(유로-달러)**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ECB 주요 인사의 발언에 힘입어 유로화의 약세 압력은 다소 완화됨
- **(달러-엔)** 일본 당국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일 금리차 지속 우려 속에 161엔 후반대로 올라서며 엔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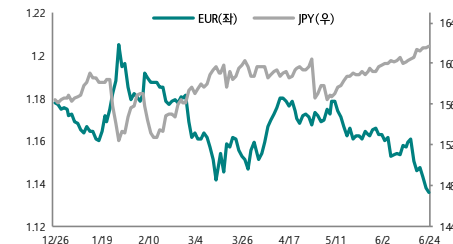
-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며 원화 환율의 상방 압력을 높이고 있음.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로 큰 폭의 유출을 기록한 외국인 자금은 4월 들어 잠시 진정되는 듯했으나 5월에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했음. 6월 중순 한때 매도세가 잦아드는 듯 보였지만 재차 확대되는 양상임. 이는 곧 달러 매수세로 이어져 환율 다시 1,54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외국인 매도세는 코스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힘. 여기에 6월 FOMC에서 부각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시장의 금리인상 우려를 자극하면서, 자금 이탈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여짐. 반면, 지난 3월의 대규모 순매도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던 점에서 최근의 이탈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최근 중동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된 점은 향후 외국인 자금의 유출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임. 그렇지만, 외국인의 리밸런싱성 자금 이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따라서 이에 따른 환율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534.9	1,541.8	1,542.7	1,541.9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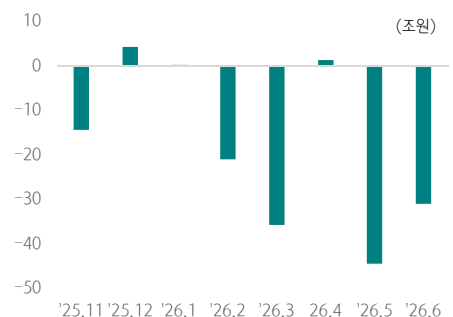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358	161.77	6.8133
전일대비	-0.0024	+0.25	+0.0184
재정환율	1,751.32	953.09	226.28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미국 1분기 GDP(QoQ)	1.6%	0.5%
	미국 PCE물가지수(YoY)	4.1%	3.8%
	미국 근원PCE물가지수(YoY)	3.4%	3.3%
	미국 5월 내구재주문(MoM)	-5.0%	8.0%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